



# 스님의 손가락, 지표성 그리고 ‘체험’의 메타화용론

이준용

서울대 인류학 박사과정

E-mail : junyongzen@snu.ac.kr

## 선불교의 반-언어 수행은 어떻게 체험을 구성하는가

### • 연구 배경 : 선불교는 언어를 부정한다?

한국 선불교가 ‘불립문자(不立文字)’와 ‘언어도단(言語道斷)’의 표어로 대표되면서, 선문답과 화두는 언어를 부정하는 신비주의적 실천인 것처럼 오해되어 왔다. 연구자는 선불교가 언어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말의 문자적 의미나 고정된 진릿값에 집착하는 관점을 해체하는 방편으로 언어를 사용해 왔다고 본다. 선불교의 반-언어 전통은 말의 부정을 넘어 말 이면의 수행적 맥락, 말하고 · 듣고 · 해석하는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 • 이론 틀 : 언어인류학과 메타화용론

‘지표성(indexicality)’은 억양 · 제스처 · 침묵 · 시선 · 공간 배치 같은 기호들이 발화 상황 · 사회적 관계 · 분위기를 가리키는 동시에 구성해내는 기호 작용이고, ‘메타화용론(metapragmatics)’은 그 발화가 어떤 장르 · 관계 · 권위 · 규범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분석하는 틀이다. 다시 말해, 지표성은 기호와 맥락 사이 연결을 설명한다면, 메타화용론은 그 연결이 어떻게 식별 · 명명 · 평가 · 통제되는지를 설명한다(Silverstein, 1976; 2003; Nakassis, 2018).

이 연구는 ‘수불 스님의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다룬 BBS 다큐멘터리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다큐멘터리는 2차 자료를 넘어 무엇이 ‘간화선 수행다운’ 장면이고 어떤 말하기와 태도가 수행의 증거로 제시되는지를 선택 및 배치하는 공적 재현 장치다. 그 공적 재현과 실제 수행 현장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연구자는 간화선 수행이 불교식 질의응답을 넘어 수행 참가자의 추론 습관과 주의의 맥락을 재구성하여 새 행위 가능성을 여는 메타화용적 장치임을 밝히고자 한다.

## 후반부 : 말해지는 체험, 승인되는 수행

### • [전환] “뺨글뺨글 돌기만 해요”: 체험의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제 참가자들의 말은 이전과 다른 언어양식을 갖추게 된다. 예컨대, “뺨글뺨글 돌기만 해요” ·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 “뭔가 터졌다” · “나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졌다” · “뺨아진 느낌이 든다” 등은 체험이 특정 양식으로 표현되고 참가자의 말이 특정 양식에 맞게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뭔가” · “나도 모르게” 등은 자아 중심적 서사가 약화되는 방향을 암시한다(Capps, Ochs, 1995). 이처럼 스님과의 반-언어적 상호작용을 경유하면서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간화선 체험은, 참가자 내면의 순수한 초언어적 사건이기보다는, 추론 틀과 서사 구조가 재구성되는 언어적 사건에 가깝다.

### • [결말] 개인 면담과 승인: 수행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종 개인 면담에서, 참가자는 체험을 묘사하고 스님은 이를 점검한 후 승인하거나 부인한다. 승인을 위해 고려되는 것은 참가자가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태도 · 말투 ·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수행적 맥락이다(Lempert, 2008). 즉 간화선 수행의 성취 여부는 참가자의 내적 진위가 아니라 그와 상호작용하면서 맥락을 판정하는 스님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핵심 장면을 다큐멘터리는 일부러 음소거 처리하면서 실루엣으로만 연출하고, 과정 속 시행착오 및 실패 사례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간화선 수행을 여과 없이 묘사하기보다 특정 단계와 전형적 장면을 선택적으로 전경화 및 배경화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승인 절차를 선택적으로 재현하면서, 다큐멘터리는 무엇이 간화선다운 체험인지를 식별하는 전문성을 공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한다(Carr, 2010).

## 연구질문

1. 선불교의 반-언어 전통과 수행 방법론은 어떤 의미에서 언어인류학 및 메타화용론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가?
2. 간화선 집중수행의 장면에서 질문 · 손가락 튕기기 · 반문 · 침묵 · 억양 등은 참가자의 체험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 결론 : 종교적 체험의 수행적 구성

### • 간화선 체험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

간화선 체험은 특정 실체나 진리가 내면에서 발견되고 경험되는 사건이 아니다. 화두 질문 · 손가락 튕기기 · 반문 · 침묵 · 의심의 정동 · 승인 절차 등이 얽히는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참가자가 기존 추론 틀과 서사를 포기하고 메타화용적 주의 형식과 언어양식을 선택하면서 동반되는 수행적 효과다.

체험의 핵심은 새 앎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듣고 해석하고 말할 것인가에 관련한 상호작용 규칙이 재구성되는 일이며, 이것이 승인 이후 “거문고 줄 고르듯이 조용히 자기 시간 보내라”라는 오묘한 실천 지침이 제공되는 이유다.

### • 나가며 : ‘불교인류학’의 제안

선불교의 반-언어 전통과 수행 방법론은 말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추론 · 주의 · 체험 · 전문성을 메타화용적으로 재구성한다. 종교적 체험과 그 전문성이 상호작용 및 재현의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승인되는지 보여주는 선불교 수행 현장은 유의미한 언어인류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연구자는 제안한다.

## 전반부 : 기존의 언어적 해석을 멈추게 하는 장치들

### • [도입] 손가락 튕기기 제스처 : 화두와 추론 중지

수불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검지 손가락을 튕기게 한 후 “무엇이 나오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까?”라고 묻는다. 이어서 “답만 찾아야 돼요”라고 당부하되, 답에 관한 지표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더 가르쳐주면 군더더기”라며 발화를 중단한다. 이 장면에서 손가락 튕기기 · 반복되는 명령형 어조 · 강한 억양 · 엄숙한 분위기 · 긴장한 기색은 답을 추론하게 하는 맥락화 단서로 작용한다(Gumperz, 1982).

참가자들은 “당황스러웠다” ·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 “가슴이 답답하다” 등의 발화를 한다. 화두 질문은 청자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문문이 아니며, 기존의 추론을 멈추고 다른 형식의 주의를 강제하는 명령으로 기능한다. 손가락 튕기기 제스처와 화두 질문은 참가자를 “마음”이라는 뻘한 답을 아는 사람의 위치로부터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위치로 재배치한다.

### • [전개] 반문과 제재 : 기존 추론 틀의 차단

시간이 지나면 참가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 받으려 한다. “꼭 몸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까?”와 같은 질문은 체험의 조건과 기준을 기존 인과 추론 틀 안에서 확정하기 위한 시도다. 스님은 짧게만 답변하고 “딴 생각”으로 규정하여 차단하며 화두로 돌려세운다. 이때 스님의 반문과 제재는 참가자를 침묵시키는 억압이 아니라 기존 추론 틀을 넘어 새 수행의 습관과 지표 질서에 동기화되도록 이끄는 메타화용적 장치다.

이 시점부터 화두는, 스님이 발화한 질문 문장의 명시적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발화 효과로 참가자 안에 수행적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 의심 형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참가자의 몸의 변화나 체험은, “정신적인 벽”으로 은유되는 내적 실체의 증거가 아니라, 화두가 메타화용적 형식으로 재구성되고 기존 추론 틀을 약화할 때 동반되는 수행적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Capps, Lisa, & Elinor Ochs, 1995, Constructing Panic: The Discourse of Agoraphobi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r, E, Summerson, 2010, “Enactments of Expertis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9: 17~32.
- Gumperz, John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mpert, Michael, 2008, “Denotational Textuality and Demeanor Indexicality in Tibetan Buddhist Debate”,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ogy 15-2: 171~193..
- Nakassis, Constantine V, 2018, “Indexicality’s Ambivalent Ground”, Signs and society 6-1: 281~304.
- Silverstein, Michael, 1976, “Shifters, linguistic categories, and cultural description”, In K. H. Basso & H. A. Selby(Eds.), Meaning in Anthropology,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Silverstein, Michael, 2003, “Indexical Order and the Dialectics of Sociolinguistic Life”, Language & Communication 23-3: 193~229.